

1930年以後 朝鮮에 侵入한 日本獨占資本의 正體

安 秉 直

<目 次>

I. 序 言	III. 日本獨占資本의 民族經濟收奪實態
II. 日本獨占資本의 內容	1. 民族資本의 沒落
1. 日本獨占資本侵入의 背景	2. 朝鮮人貯蓄의 收奪
2. 日本獨占資本의 諸政策	3. 朝鮮人의 強制勞動
3. 日本獨占資本의 實態	IV. 結 語

I. 序 言

1930年以後 朝鮮에 進出한 日本獨占資本이 朝鮮經濟에 대하여 어떠한 意味를 가지는가 하는 問題에 대하여 正確히 理解한다는 것이 이제 民族抗日時期의 朝鮮經濟形態의 性格究明 및 해방후 韓國經濟開發方向의 올바른 設定과 關聯하여 重要한 意義를 갖게 되었다. 經濟開發問題와 關聯하여 이 問題를 理解하려는 사람들은 大體로 1930年以後 日本獨占資本의 役割을 「韓國의 近代化」 혹은 「韓國의 工業化」로 理解하고 있고, 朝鮮經濟形態의 性格究明과 關聯하여 이 問題를 理解하려는 사람들은 그것을 「朝鮮經濟의 資本主義化」로 理解하고 있다. 朝鮮經濟形態의 性格究明과 關聯하여 또 한 가지 獨特한 理解方法은 그것의 重要性을 過小評價하는 同時에 그것을 勘案하더라도 1930年以後의 朝鮮經濟形態는 「植民地商人資本主義」라고 하였다.

위의 어느 理解方法도 1930年以後 朝鮮에 進出한 日本獨占資本의 活動을 具體的이며 綜合的으로 分析한 土臺위에서 導出된 것은 아니다. 近代化說 혹은 工業化說은 朝鮮總督府의 官吏 및 日本人御用學者의 見解에 不過하며 그 內容도 『朝鮮經濟年報』의 再生産 바로 그것이다. 資本主義說은 日本獨占資本의 役割을 지나치게 強調하는 한편 그것이 日本帝國主義經濟의 한 附屬物에 不過하다는 것을 看過하고 있다. 그것은 資本主義說이 日本獨占資本을 主體로 日本과 獨立한 朝鮮의 經濟構成體를 定立하려는 試圖에서 확실히 간취

될 수 있다. 植民地商人資本主義說은 日本獨占資本의 役割을 過少評價하는 동시에 그것을 經濟開發理論에서 定立된 自己充足的 企業 혹은 自己完了의企業(self-contained enterprise)으로 理解하려고 하나 客觀적 史實과 맞지 않는다.

위의 諸說은 어느 것이나 1930年以後 소위 「朝鮮工業化」의 主體가 누구였던가에 대하여 극히 無感覺하다고 할 수 있다. 植民地商人資本主義說은 이 點을 強調하고 있기는 하나 그 觀點이 論理的으로 統一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와 같이 日本帝國主義의 植民地로서 近代를 經驗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나라에서는 그 나라 近代社會의 諸側面을 研究함에 있어서 主體의 問題를 強調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 問題를 看過하고 우리나라 近代史를 緒述함에 있어서 그 속에 混在하는 帝國主義의 主體와 民族主體를 無差別하게 취급해 버린다면 그 나라의 歷史가 어느 나라의 歷史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되어 버리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1930年以後 日本獨占資本에 의한 工業化를 「韓國의 工業化」 혹은 「韓國의 資本主義化」라고 하는 것은 朝鮮經濟內에 混在하고 있는 각 主體들을 明確히 區分해서 把握하지 않는에서 나오는 誤謬이다.

그리고 1930年以後 朝鮮에 進出한 日本獨占資本은 朝鮮經濟의 여러가지 分野와의 關聯 위에서 活動하였을 것이다. 日本獨占資本만으로서 「농부신」 「韓國의 工業化」는 不可能하였을 것이다. 즉 日本獨占資本은 朝鮮人의 貯蓄을 強盜의 方法으로 掠奪하고 朝鮮의 勞動者를 奴隸化시키는 條件 위에서 그 發展이 可能하였다. 이러한 여러가지 收奪的 側面을 具體的으로 分析하지 않고서는 日本獨占資本의 正體가 올바로 理解되지 않음은 勿論 日本獨占資本의 「농부신」 發展보다도 朝鮮經濟의 被收奪相을 올바로 把握하는 것이 解放後 韓國經濟의 發展을 理解하는데 더욱 큰 도움을 주지않겠는가? 日本獨占資本의 正體를 보다 더 正確하게 理解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收奪相과 더불어 그 속에 生活하였던 朝鮮人의 對 日本獨占資本鬭爭도 看過할 수 없는 問題이기는 하나 本論文에서는 할애하기로 한다.

II. 日本獨占資本의 內容

1. 日本獨占資本侵入의 背景

1930年을 前後로 日本獨占資本은 朝鮮에 積極的으로 侵入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日本帝國主義가 1920年代까지와 같이 朝鮮을 日本商品의 獨占的 販賣市場 및 食糧·原料의 供給地로서 收奪하는데 滿足치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日本獨占資本의 投資市場으로서도 收奪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1920年代까지 日本產業資本이 植民地朝鮮에 進出

하는 것을 積極的으로 혹은 消極的으로 抑壓하였던 日本帝國主義가 1930年을 前後로 그들의 產業資本을 朝鮮에 積極的으로 進出시킨 時代의 背景은 무엇인가? 그것은 抽象的으로 말하면 帝國主義段階의 植民政策 바로 그것이었으며 이러한 基本的인 意味에 있어서 다른 帝國主義의 植民政策과 根本的으로 다른 特徵은 없었다. 그것은 具體的으로 보면 世界의 여러 植民政策이 각각 具體的인 條件에 따라 特殊하게 發展한 것과 마찬가지로 日本帝國主義의 朝鮮植民政策도 特殊하게 發展하여 왔다고 할 수 있겠다. 1930年을 前後로 日本獨占資本이 朝鮮에 積極的으로 進出한 時代의 背景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1927年의 金融恐慌으로 打撃을 받은 日本經濟는 1929年의 世界大恐慌으로 未曾有的 農業恐慌을 同伴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은 食糧供給地로서의 朝鮮植民政策과 正面으로 衝突하였다. 日本帝國主義는 이러한 農業恐慌을 打開하기 위하여 外國米에 대하여 1928年에는 輸入制限, 1930년에는 關稅率의 2倍引上, 1931년에는 輸入許可制를 각각 斷行하였으나 日本米에 대한 主要한 競爭品이 朝鮮米이기 때문에 별 效果를 거두지 못하였다.⁽¹⁾ 그러므로 日本議會 및 農林省은 1927년부터 朝鮮總督府에 대하여 朝鮮米増殖計劃을 中斷하도록 忠告하는 한편⁽²⁾ 1932년에는 朝鮮米의 朝鮮內消費를 強要하기 위하여 雜穀에 輸入稅를 賦課하였다.⁽³⁾ 여기서 日本帝國主義의 朝鮮植民政策은 農業中心政策으로부터 工業誘致政策으로 轉換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둘째 1927年以後로부터 1930年代初期의 破局的인 經濟恐慌을 克服하기 위하여 日本獨占資本은 過剩資本의 새로운 投資地를 必要로 하였다. 日本經濟는 第1次 世界大戰以後 世界經濟의 相對的인 安定期에도 不況을 克服하지 못하고 國內인플레이政策에 의하여 겨우 그 活動을 持續하여 왔으나 1927年의 金融恐慌으로 破局에 直面하여 企業의 倒産이 속출하는 반면 카르텔·콘체른 등 獨占을 強化하였다. 銀行·會社資本의 增減趨勢를 보면 1926年을 100으로 할 때 新設增資는 1927年의 98.6에서 1930年의 61.7로 急激히 減少하고 解散減資는 1927年의 97.9에서 1930年의 133.7로 增加하였다.⁽⁴⁾ 이것은 단적으로 日本內에 새로운 投資市場을 갈망하는 過剩資本이 蓄積됨과 동시에 새로운 投資市場을 獲得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侵略戰爭도 辭讓하지 않을 準備가 되어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셋째 朝鮮은 日本보다 資源이 乏乏하고 풍부하여 植民地超過利潤을 保障할 수 있었으며, 日本工業의 軍事的再編成을 위한 軍需原料가 특히 豊富하였다. 地價는 日本과 比較할 수 없

(1) 楫西光速外 三人 共著, 『日本資本主義의 沒落』, 1969, pp. 568-9.

(2) 鈴木正文, 『朝鮮經濟의 現段階』, 1938, p. 205.

(3) 楫西光速外 三人 共著, 前掲書(Ⅲ), p. 816.

(4) 楫西光速外 三人 共著, 前掲書(Ⅱ), p. 361.

< 丑 1 > 朝・日鑛物生産額對比表

(圓)

種 類	朝 鮮		日 本	
	數 量	價 額	數 量	價 額
金	12,400,951瓦	38,320,921	18,293,869瓦	86,234,439
砂 金	2,309,372 "	7,136,796	27,447 "	75,262
金 銀 鑛	58,146 "	6,502,959	—	—
銀	59,345,459 "	2,558,130	256,004 "	17,917,000
銅	2,169,517 疋	1,533,797	70,317,043 疋	52,152,000
鉛	1,728,130 "	388,762	7,442,361 "	1,774,000
亞 鉛	2,218 "	80,632	34,191 噸	10,632,000
鐵 鑛	228,220 噸	1,279,269	515,000 "	—
銑 鐵	147,774 "	7,332,318	1,906,787 "	—
鋼 鐵	97,434 "	6,764,148	4,702,586 "	—
重 石 鑛	875,674 疋	1,388,953	89 "	97,000
水 鉛	105,509 噸	264,729	6,435 疋	13,000
니 케	—	—	9 "	28,000
滿 掩 鑛	—	—	71,659 噸	1,370,000
안 티 모 니	5 "	2,651	173 "	40,000
水 銀	139 疋	872	5,089 疋	27,000
明 礬 石	推定埋藏量 3,840百萬噸	—	81,510 噸	381,465
마크네사이트	2,410 "	7,192	—	—
黑 鉛(鱗 狀)	4,234 "	339,323	1,201 "	78,000
" (土 狀)	40,464 "	868,235	—	—
石 炭(無煙炭)	1,079,330 "	7,173,085	37,762,491 "	270,177,000
" (有煙炭)	919,833 "	4,752,064	—	—
高 嶺 土	33,401 "	204,076	—	—
珪 砂	38,692 "	68,248	274,435 "	896,000
螢 石	9,722 疋	116,420	—	—
石 綿	6 噸	888	4,459 疋	3,000
蠟 石	8,412 疋	30,031	—	—
重 晶 石	11,027 "	126,345	—	—
硫 化 鐵 鑛	55,611 噸	308,028	1,338,891 噸	13,423,000
硫 黃	—	—	186,042 "	10,455,000
石 灰 石	—	—	747,669 "	5,415,000
雲 母	87,123 疋	50,397	—	—
砒 鐵	373 噸	46,657	3,161 "	506,000
鹽 및 소 다	534,881 千斤	—	1,007,401 千斤	—
石 油	—	—	2,509,568 疋	11,985,000
가 스	—	—	414,741 疋	696,000

자 료 : 朝鮮銀行調查課, 『內鮮滿北支地下資源對照』, 1937.

주 : 1) 1935 年의 生産量임.

2) 埋藏量의 對比가 아님을 注意할 必要가 있다.

3) 原表에 있어서 單位에 관한 錯誤가 있는 듯하다.

을 만큼 低廉하였으나, 朝鮮總督府 및 地方官吏의 強壓에 의하여 더욱 싸게 日本獨占資本에 提供되었으며, 1937年부터는 「土地收用令」의 擴大適用에 의하여 強制買收당하였다.⁽⁵⁾ 價金은 日本人勞動者의 2分の1이었으며, 勞動은 「官斡旋」, 「徵用」, 「勤勞報國隊」 등으로 奴隸的 方法으로 酷使당하였다. 그리고 電力資源과 特殊鑛物資源은 日本工業의 軍事的 再編成 및 植民地的 超過利潤을 保障할 수 있을 만큼 豊富하였다.

넷째 日本帝國主義의 滿洲侵略 및 中國侵略이 朝鮮에 있어서 工業發展을 위한 市場을 擴大하였으며 동시에 이 侵略戰爭을 遂行하기 위하여 朝鮮을 「大陸前進兵站基地」로 設定하고 軍需工業建設을 政策的으로 強行하였다. 이것은 1930年以後 朝鮮에 있어서 工業이 急速하게 發展할 수 있었던 가장 重要한 直接的인 原因이었으나 동시에 위에서 든 세가지의 基礎條件 위에 立脚하고 있었다. 「朝鮮의 地位 및 資源 其他의 企業條件에 비추어 日本 및 滿洲에 있어서의 對策과 連繫를 갖는 製鐵業, 輕金屬工業, 造船業, 自動車 및 飛行機組立修理工業, 鑛業用機械製造工業 등의 진흥을 圖謀하는 외에 帝國液體燃料政策의 一部를 分擔하여 計劃的으로 石炭系液體燃料工業 및 燃料알뜰工業의 확립을 기하는 등의…… 施設을 急施할 必要가 있다」⁽⁶⁾고 한 것은 바로 朝鮮에 있어서 軍需工業의 建設이 計劃的으로 進行되었으나 企業條件이 허락되는 條件下에서 추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日本獨占資本의 諸政策

日本帝國主義는 朝鮮을 그의 植民地로 編入한 이후 적어도 1920年代末까지는 朝鮮에 近代工業이 發展하는 것을 抑壓하여 왔다. 그것은 日本帝國主義의 植民政策이 적어도 그

(5) 「地價騰貴抑制政策은 별도로 이에 關한 制令같은 것은 公布되어 있지 않으나 各地方官廳을 통하여 각종 제스퀴를 가지고 工場計劃者側의 便利를 도모하고 있다. 이 때문에 早期에 買入된 朝鮮窒素興南工場(敷地 20萬坪, 昭和 3年買收)같은 것은 坪當 5錢으로부터 2圓, 平均 20錢으로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本宮工場은 60萬坪의 用地로 1935년에 買收되어, 坪當 田 67錢으로부터 87錢, 畝 88錢으로부터 1圓 10錢이며, 長津江水電用地 78萬坪은 1935년에 買收, 畝 53錢, 田 16錢, 林野 1錢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1936년에 買收된 것이라도 元山朝鮮石油工場(10萬坪)은 坪當 平均 2圓 50錢이다. 海州에 있어서 朝鮮洋灰의 경우는 總督府의 斡旋에 의하여 海岸 35萬坪의 埋立權을 無償으로 供與 받았다. 1936년에 買收된 新義州鍾紡人絹필프工場地 3萬6千坪은 坪當 5圓이며 工場地價가 점차 騰貴하려는 傾向이 顯著한 것이다. 京城郊外永登浦의 工場地 같은 것은 今日에 이미 15圓에 달하고 있다.」 「북하 이(地價騰貴抑制政策)를 위하여 制令을 公布하여 새로운 取締方法을 樹立하는 案은 없으나, 1937年 2月 土地收用令의 適用解析을 고려 同令의 効力を 擴大할 것을 決議하였다. 이에 의하면 同令은 元來 國家的 事業의 工場設置에 當하여 適用되어야 할 것이나 化學工業은 今日의 國際情勢 및 廣義國防의 見地로부터 보아 國家的 事業으로 看做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化學工業工場敷地에 대해서는 同法의 精神을 適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당시 總督府審議室에 있어서는 이를 國家的 工場으로 20餘 工場을 들었는데 그 중에는 스테부르·파이버工場도 들어있었다.」(鈴木正文, 前掲書, pp. 208-11.)

(6) 朝鮮總督府, 『朝鮮産業經濟調査會會議錄』, 1936. 11, p. 438.

때까지는 朝鮮으로 하여금 日本獨占資本을 위하여 食糧・原料를 供給할 수 있도록 資源을 配分할 것을 要求하고, 나아가서 朝鮮에 近代工業이 發展함으로써 그들과 競爭關係에 서는 産業의 發展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1910 年代의 「土地調査事業」 및 1920 年代의 「產米增殖計劃」의 遂行에 朝鮮總督府産業政策의 重點이 놓여있었다는 事實과 朝鮮에 있어서 會社企業의 發展을 彈壓하기 위하여 實施된 「會社令」에 의하여 實證되고 있다. 勿論, 이것은 이 時期에 朝鮮에 있어서 近代的 工業이 전혀 發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時期에 있어서 日本의 國家資本 및 會社資本의 進出에 의하여 朝鮮에 近代的 諸施設 및 産業資本이 發展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주로 農産物의 流通 및 加工을 위한 設備과 朝鮮에 近代的 貨幣經濟가 發展함으로써 自然發生的으로 成長한 中小企業들에 不遇하였다. 「1911 年 1 월에 있어서의 「會社令」의 實施는 企業의 抑制를 通하여 移入市場의 機構를 形成하고 米穀朝鮮에의 誕生을 機會로 生産 및 流通經濟를 米穀色化하였으며, 支那事變의 勃發은 名實相符한 統制經濟를 齎來하였다」⁽⁷⁾고 指摘한 것은 客觀的인 事情에 맞는 適切한 表現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朝鮮總督府의 産業政策이 農業政策 일변도로 흐르는 것을 許容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朝鮮人民族資本家は 이에 대하여 強力하게 反對하였으며, 1920 年代의 不況을 克服하지 못한 日本獨占資本도 [이를 許容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1920 年 「會社令」이 撤廢되고 企業設立의 自由를 認定함과 동시에 朝鮮에도 近代的 工業을 發展시킬 것을 計劃하였다. 當時에 作成된 「朝鮮産業에 관한 施設要項」에는 「장래 朝鮮內에 成立할 大工業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 事情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朝鮮에 있어서 工業의 成立은 內鮮人 및 內鮮經濟의 關係를 밀접히 하고, 朝鮮人의 工業上의 趣味 및 智能을 啓發하는 데에 아주 必要함에도 不拘하고 企業의 條件에 있어서는 이것을 內地에 미하여 尙望不利한 點이 없지 않음으로써 成立發達을 助成하기 위해서는 역시 相當한 援助를 주지 않으면 안된다」⁽⁸⁾고 하였으나 實際로 工業造成政策으로서는 關稅의 按配(主要競爭商品이 日本의 工産品이기 때문에 이것은 朝鮮工業助成策으로서는 아무런 效果가 없다), 調査, 試驗, 技術者 및 職工의 養成, 指導 등의 間接的 方法을 취하였기 때문에 朝鮮에 있어서 近代工業을 設立할 積極的인 의사가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朝鮮에 있어서의 工業發展을 中小工業에 묶어 돌려고 하였다. 이 「施設要項」에서 具體的으로 朝鮮에 建設할 工業을

(7) 川合彰武, 『朝鮮工業의 現段階』, 1943, p. 18.

(8) 高橋龜吉, 『現代朝鮮經濟論』, 1935, p. 352.

- 「(1) 生産의素地가 있는 것,
- (2) 原料의 生産餘地가 있으며, 또는 그 輸移入이 容易한 것,
- (3) 操業이 簡易하여 小工業에 適合한 것」⁽⁹⁾

으로 指定하였다. 따라서 이 時期에 朝鮮에 있어서 中小企業이 簇出하기는 하였지만 近代의 大工業의 發展은 例外的인 存在에 不過하였다.

朝鮮에 日本의 近代의 大工業을 誘致하는 政策을 취한 것은 1930 年을 前後로 시작되었다.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重農的 植民政策은 日本의 農業과 그 利害가 正面으로 衝突하였기 때문에 더 以上 繼續할 수 없었으며, 한편 日本의 過剩資本은 朝鮮을 近代資本制의 方法에 의하여 보다 組織的으로 收奪할 것을 要求하였다. 이 結果 誕生한 植民政策의 轉換이 宇垣의 「農工併進政策」이다. 이 「農工併進政策」은 從來 農業本位의 朝鮮植民政策이라는 固定觀念을 破壞하였다는 點에서는 植民政策에 있어서 劃期的인 轉換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積極的으로 工業의 發展을 促進하는 施策을 취하였던 것은 아니다.⁽¹⁰⁾ 單純히 時代錯誤的인 「自由主義」의 路線을 따라 朝鮮에 工場法의 實施을 拒否하고 日本商工省側의 「重要産業統制法」實施의 要求를 迴避함으로써 朝鮮에 있어서 日本獨占資本이 自由롭게 自然資源 및 勞動力을 收奪할 수 있는 條件을 마련한데 不過하였다. 1930 年代前半期 朝鮮에의 日本獨占資本의 積極的인 誘致를 위한 例外的인 措置는 1932 年 2 월에 制定된 「朝鮮電氣事業令」이었다. 이것은 朝鮮의 「發電網計劃 및 送電網計劃」을 實施하기 위하여 公布된 것인데 이 計劃은 朝鮮에 있어서 近代의 大工業의 發展을 위한 前提條件인 低廉한 動力의 供給을 可能케 하였다.

그러나 1930 年代의 後半期 특히 1937 年 日本帝國主義의 中國侵略戰爭以後로 朝鮮總督府의 產業政策은 強權의 國家權力에 의하여 日本獨占資本에 植民地의 超過利潤을 保障할 것을 約束하였다. 1936 年 11 月の 「朝鮮產業經濟調查會」(以下 調查會로 省略)의 決定, 1937 年 10 月の 「臨時資金調整法」(以下 調整法으로 省略)의 實施, 1937 年 3 月の 「國家總動員法」(以下 動員法으로 省略)의 公布가 바로 그것이다. 「調查會」의 決定은 이 以後 朝鮮總督府產業政策의 骨格을 形成한 것이며, 「調整法」은 朝鮮의 金融을 軍需產業에 優先的으로 配分할 것을 約束하였으며, 「動員法」은 日本獨占資本에 대한 朝鮮人의 強制勞動, 賃金統制, 勞動時間의 延長을 目的으로 하였다.

「調查會」의 決定은 產業政策으로서 「農工併進」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 核心은 工業政策에

(9) 前掲書, p. 349.

(10) 朝鮮總督府, 『施政二十五年史』, 1935, p. 793.

놓여있었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工業政策은 朝鮮의 獨自的인 「工業化」를 追求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은 물론, 「朝鮮에 있어서 近代의 工業은 資本的으로도 技術的으로도 또 人的으로도 內地巨大產業의 延長以外에 아무 것도 아닌」⁽¹¹⁾ 軍需工業의 發展政策이었다. 이 日本巨大產業의 延長에 不過한 軍需工業도 日本企劃院의 「日本帝國」產業政策의 틀 안에서 推進되었으며 이것은 「調査會」의 一般事項決定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 「帝國現下의 情勢上 帝國經濟圈內에 있어서 綜合的 經濟力의 積極的 充實強化를 圖謀할 必要가 緊急하다. 朝鮮・滿洲에 있어서 產業의 全面的 發展의 趨向에 비추어 帝國政策의 決定에 順應하고 內外產業全盤을 總觀하여 適地適業主義에 의하여 그 積極的 建設을 圖謀할 必要가 있다. 따라서 政府內部에 內外產業經濟의 積極的 建設에 관한 連絡審議機關을 設置하여 一貫된 指導方法을 決定하고 이 방침에 基礎하여 各般의 具體的 方策을 實施할 必要가 있다.」⁽¹²⁾ 여기서 우리는 1930年代의 所謂 「朝鮮의 工業化」가 日本獨占資本이 主體가 되어 推進되었다는 것, 當時의 소위 「朝鮮의 工業化」는 日本의 工業化였다는 것을 確認할 수 있다. 그리고 「調査會」는 朝鮮에 進出한 日本獨占資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特惠를 부여하였다.

1. 必要에 따라 獎勵金을 交附하는 의에 事業에 必要한 動力料金 및 運賃의 輕減, 運輸設施의 整備, 原料의 確保, 用水調査 등에 대하여 될 수 있는 한 特典 또는 便宜를 提供할 것.
2. 事業에 대한 認可制의 設定, 事業에 必要한 土地收用權의 附與, 租稅에 關한 特典 및 保護關稅의 設定 등에 대해서는 그 事業에 따라 機宜한 方策을 講究할 것.」⁽¹³⁾

위와 같은 「調査會」의 決定이 1930年後半期 所謂 「朝鮮工業化」政策의 竹格이나 그것을 完全히 理解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措置를 追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調整法」은 朝鮮에 進出한 日本獨占企業의 軍事的 再編成을 위한 朝鮮의 金融・財政機構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法은 「資材 및 資金의 使用에 대해서는 國家全般的 目的 遂行의 見地로부터 浪費를 省略하고, 最高의 能率을 發揮하도록……(그리고) 資材 및 資金이 國防 其他 時局에 緊切한 方面으로 向하고, 他의 方面에 向하지 않도록」⁽¹⁴⁾ 事業資金의 調整, 時局產業資金의 供給, 貯蓄債權의 발행, 金融事項에 關한 調査 등을 그 內容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朝鮮의 金融資金을 日本獨占資本에 獨占시키는 것이 궁극적 目的이었지만 이

(11) 鈴木正文, 前掲書, p. 206.

(12) 朝鮮總督府, 『朝鮮産業經濟調査會會議錄』, 1936. 11, p. 647.

(13) 前掲書, p. 395.

(14) 朝鮮金融組合聯合會, 『臨時資金調整法 및 銀行等資金通用令에 관한 資料』 참조.

法에 根據를 둔 「朝鮮貯蓄造成運動」은 朝鮮人の 貯蓄 뿐만이 아니라 生活資料의 一部分까지도 日本獨占資本에 獻納토록 하였다. 둘째 「動員法」은 여러 가지 勞動力強制動員을 위한 諸法規의 母法이었다. 1939年以後 이 法에 根據하여 「國民能力申告令」, 「國民徵用令」, 「賃金統制令」, 「工業就業時間制限令」이 차례로 公布되어 數百萬에 달하는 朝鮮人勞働者가 長時間, 低賃金, 非自由의 條件으로 日本獨占資本을 위하여 奴隸的 方法으로 酷使당하였다. 「調整法」 및 「動員法」에 의한 日本獨占資本의 朝鮮人收奪實態에 대해서는 다음에 具體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요컨대 이 時期 朝鮮總督府의 所謂 「朝鮮의 工業化」政策은 朝鮮人の 絶對的 犧牲위에 戰爭이라는 特殊한 方法을 動員하면서까지 日本獨占資本의 増殖을 圖謀하는 方向으로 一貫되어 있었다.

3. 日本獨占資本의 實體

1930年以後 所謂 「朝鮮工業化」의 主體는 무엇이며 그들이 朝鮮에 언제부터 進出하였는가, 그리고 그들의 資本形態는 어떠한가? 여기서는 統計資料를 가지고 이들을 實證해 보기로 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선 指摘해 두어야 할 것은 1930年代後半期以後의 統計는 그 信憑性에 疑心스러운 點이 많다는 것이다. 이 時期에 있어서 資料發表가 극히 심한 統制를 받았다는 事情과 관련하여 資料의 根據, 統計作成의 基準이 曖昧한 것이 많으며 大部分의 統計는 탁상 위에서 作成된 業務統計이므로 誤差가 많을 것이라는 것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統計가 日本帝國主義政策遂行의 目的에 적합하도록 作成된 것도 留意할 必要가 있다. 그러므로 이들 統計는 大體的인 傾向을 살피는데 利用될 수 있을 뿐이며 具體的인 內容을 分析하는 데는 다소 注意를 요할 것 같다.

<표 2>는 1930年以後 所謂 「朝鮮工業化」의 主體가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다. 「本調査에 수재된 것은 當方에서 蒐集할 수 있었던 材料에 依據한 것으로서 最近 勃興하고 있는 事業 또는 計劃中에 屬하는 것의 全部가 아니기」⁽¹⁵⁾ 때문에 다른 統計資料와 比較하여 보면 상당한 差異가 있다. 그러나 다른 統計資料도 대체적 傾向은 이 資料와 비슷하다. 이 資料는 1930年代以後 所謂 「朝鮮工業化」의 主體가 三井, 三菱, 野口, 伊藤忠, 東拓, 電力聯盟, 日産, 日棉 등 日本의 重要獨占財閥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朝鮮에 進出하는 方式은 支店 혹은 分工場으로서가 아니라 朝鮮에 獨立會社를 創設한 것이 많으나, 本店會社는 支店會社는 日本內 獨占財閥本部의 支配下에 있었다는 것은 明白하다. 日本獨占財閥이 朝鮮에 積極적으로 進出한 時期는 大體로 1930年以後이다. 勿論

(15) 朝鮮銀行調査課, 『最近 朝鮮에서 勃興하고 있는 重要事業調査』, 1937. 1.

<丑2> 新興事業資本系統圖

(千圓)

資本系統	區分	會社名	設立年度	本所在地	資本金(拂入資本金)
三井系		朝鮮麥酒株式會社	1933. 8	朝	6,000 (1,500)
		北朝鮮製紙化學工業株式會社	1935. 4	〃	20,000 (5,000)
		朝鮮小野田水泥株式會社	1934. 11	〃	1,500 (1,000)
		多獅島鐵道株式會社	1935. 7	〃	3,000 (1,800)
		京畿染色株式會社	1936. 10	〃	1,000 (1,000)
		鍾淵紡績株式會社	1935. 2	日	60,000 (12,000)
三菱系		日本製粉株式會社	1936. 6	日	12,000 (7,969)
		昭和麒麟麥酒株式會社	1933. 12	朝	3,000 (1,200)
		朝鮮無煙炭株式會社	1927. 2	〃	20,000 (7,500)
東拓系		朝鮮煙炭株式會社	1935. 11	〃	2,000 (500)
		日本製鐵株式會社	1917. 10	日	359,821 (15,710)
野口系		富寧水力電氣株式會社	1936. 8	朝	10,000 (2,500)
		西鮮合同電氣株式會社	1933. 5	〃	10,000 (3,144)
電力聯盟		朝鮮送電株式會社	1934. 5	〃	15,000 (3,750)
		長津江水力電氣株式會社	1933. 5	〃	20,000 (5,000)
		日本마크네금屬株式會社	1934. 6	〃	4,200 (4,200)
		朝鮮石炭工業株式會社	1935. 3	〃	10,000 (2,500)
島谷汽船系		朝鮮窒素火藥株式會社	1935. 4	〃	1,000 (250)
		朝鮮電力株式會社	1935. 7	〃	20,000 (5,000)
宇部水泥系		三陟鐵道株式會社	1936. 4	〃	5,000 (500)
		日鮮鑛業株式會社	1935. 5	〃	1,000 (1,000)
伊藤忠系		朝鮮水泥株式會社	1936. 2	〃	6,000 (1,500)
		朝鮮織物株式會社	1932. 11	〃	1,000 (376)
日產系		朝鮮油脂株式會社	1933. 10	〃	1,500 (1,500)
		朝鮮棉花株式會社	1913. 10	〃	2,000 (1,325)
其他		朝鮮製鍊株式會社	1935. 2	〃	10,000 (2,500)
		豐國製粉株式會社	1921. 10	〃	2,000 (1,500)
		朝鮮金鑛株式會社	1935. 6	〃	5,000 (5,000)
		清和鑛業株式會社	1935. 6	〃	1,500 (1,500)
		成歡鑛業株式會社	1934. 6	〃	1,000 (1,000)
		朝鮮製紙株式會社	1935. 11	〃	500 (125)
		朝鮮製氷株式會社	1936. 5	〃	1,000 (420)
		親和鑛業株式會社	1936. 5	〃	5,000 (5,000)
		日本高周波重工業株式會社	1936. 1	〃	10,000 (5,000)
		京城紡績株式會社	1919. 8	〃	3,000 (2,000)
		日本硬質陶器株式會社	1920. 6	〃	3,750 (938)
		東洋紡績株式會社	1934. 6	日	70,975 (4,000)

자료 : 朝鮮銀行, 『最近 朝鮮에 있어서 勃興하고 있는 重要事業調』, 1937.

주 : 1) 이 表는 「新興事業」에 관한 調査이므로 朝鮮에 있어서의 重要事業이 모두 包含된 것은 아니며 1935年 同行調査, 『朝鮮에 있어서 主要한 事業會社의 資本系統調』와 비교하여 보면 「新興事業」의 選擇도 아주 恣意的이다.

2) 이 表에는 計劃中の 事業은 包含되어 있지 않다.

이 表에도 1930年以前에 朝鮮에 進出한 巨大獨占會社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 있으며 또 이 表은 「新興事業」만을 수재한 것이므로 1930年以前에 朝鮮에 進出한 巨大獨占會社 중에서 이 表에서 漏落된 것도 많이 있다. 그러나 日本獨占資本이 大體로 1930年을 前後로 朝鮮에 積極的으로 進出하기 시작하였다는 事實에는 變함이 없다.⁽¹⁶⁾ 그리고 日本獨占資本이 朝鮮에 積極的으로 進出하기 시작한 時期는 1937年以後의 戰時體制下에서가 아니라 平和體制下에서라는 점이다. 勿論 1930年 日本帝國主義의 滿洲侵略以後 1936년까지를 準戰時體制라고 하기도 하나 이 時期에 朝鮮總督府의 工業政策은 宇垣의 「自由主義」를 표방하고 있었다는 點은 注目할 만하다. 즉 이것은 日本獨占資本의 朝鮮侵略이 帝國主義段階의 一般的인 植民政策이라는 狀況속에서 進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時期에 朝鮮에 進出한 日本獨占資本은 어떠한 資本形態인가? <표 2>는 그것이 紡織工業, 食料品工業, 化學工業, 窯業, 機械工業, 金屬工業, 鑛業 등 近代產業資本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勿論 이 表에 收載되지 않은 貿易業, 商業, 金融業 등 商業資本이 이 時期에 朝鮮에 많이 進出하였다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時期에 朝鮮에 進出한 日本獨占資本의 支配的인 部分이 產業資本이었다는 것을 否定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들은 日本內의 獨占產業資本과 朝鮮에 進出한 日本獨占產業資本의 流通部分을 擔當하는 機構에 不遇하였다는 事實도 認定해야 할 것이다. (勿論 여기서 金融獨占資本主義인가 產業資本主義인가를 問題로 하고 있지않다는 것에 注意해 주기 바란다.) 그러면 日本獨占資本이 朝鮮經濟에 준 效果는 어떠한가? 一般的으로 植民地的 工業建設은 植民地經濟에 주는 波及效果가 약하다고 하는 것이 定說로 되어있다. 1930年代以後 朝鮮經濟에 있어서도 이 說의 正當性을 確認할 수가 있다. 이 時期에 朝鮮에 侵入한 日本獨占資本이 資本的으로도, 技術的으로도, 人的으로도 日本獨占資本의 隸屬下에 있었기 때문에 產業聯關關係가 朝鮮內 各產業間의 關係보다도 朝鮮內의 各產業과 日本內의 產業間의 聯關關係가 보다 강하였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經濟開發理論에서 말하는 自己充足的 企業(self-contained enterprise)과는 다르다. 自己充足的 企業은 先進國資本이 低開發國에서 鑛產을 開發하여 原料를 採取하거나, 港口周邊에 加工工業을 建設하는 경우 資本 및 技術이 모두 先進國으로부터 輸入되고 또 生産物도 전부 先進國으로 輸出되기 때문에 低開發國에 대해서는 低廉한 勞動을 使用하는 外에 아무런 經濟的 聯關效果를 갖지

(16) 1930年以後 所謂「朝鮮의 工業化」의 起點을 1926年 創立된 赴戰江 第1發電所와 1927年 創立된 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가 각각 1929年 및 1930年에 送電과 生産을 開始한 時期로 잡는 것이 一般的이다.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1930年以後 所謂「朝鮮의 工業化」는 이것과는 달랐다. 鑛業, 金屬工業과 같이 原料採取的 産業이 있었다는 것은 是認할 수가 있지만은 紡織工業, 食料品工業, 化學工業 등은 朝鮮市場을 相對로 生産되었으며 또 그것이 「動員法」 및 「調整法」에 의하여 朝鮮人的 勞動과 貯蓄을 無慈悲하게 收奪하였으므로 朝鮮經濟에 커다란 衝擊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표 3>은 1942年 朝鮮內 産業設備資本의 資本系統別 構成을 나타내고 있다. 이 表도 어떠한 基準에서 資本系統別로 分類하였는가는 確實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特徵을 알 수가 있다. 우선 朝鮮內 總設備資本중에서 日本으로부터 直接進出한 會社가 支配하는 資

<표 3> 日本獨占資本의 朝鮮産業支配率

1. 朝鮮産業設備資本의 投資比率	
日本産業資本의 直接進出	74.0
朝鮮內主要産業資本系統	18.0
其他 一般朝鮮內在籍會社	8.0
合 計	100.0
2. 日本産業資本의 直接進出內容	
三 井 系	4.0
三 菱 系	6.0
住 友 系	2.0
小 計	12.0
日 窒 系	36.0
東 拓 系	11.0
日 産 系	12.0
小 計	59.0
鍾 紡 系	6.0
大日本紡系	2.0
東 洋 紡 系	2.0
小 計	10.0
日 鐵 系	4.0
其他 産業資本系	15.0
合 計	100.0
3. 朝鮮主要産業系統의 內容	
特 殊 會 社	17.0
殖 銀 系	29.0
其他日本人系	48.0
朝 鮮 人 系	6.0
合 計	100.0

자료 : 東津經濟新報社, 『年間朝鮮』, 1942.

本이 74.0%, 朝鮮內主要産業資本系統이 支配하는 資本이 18.0%, 其他가 8%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日本으로부터 直接進出한 會社의 資本支配比率이 壓倒的이다. 이것은 1930年以後 所謂「朝鮮의 工業化」가 日本으로부터 直接進出한 獨占資本에 의하여 推進되었다는 것을 證明하는 또 하나의 資料이다. 둘째 日本으로부터 直接進出한 會社가 支配하는 資本의 構成을 보면, 野口큰계륜의 日空系가 36.0%, 日産系가 12.0%, 東拓系가 11.0%로서 큰 比重을 차지하는데 대하여 日本의 巨大獨占財閥인 三井系, 三菱系 및 住友系는 각각 4.0%, 6.0%, 2.0%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資本系統의 分類가 恣意的인데서 온 것이다. 日空系와 日鐵系는 실제로 三菱系이며 鐘方系는 三井系이다. 이 點을 고려하여 資本系統을 再分類한다면 三井系는 10.0%, 三菱系는 46.0%, 日産系는 12.0%, 東拓系는 11.0%를 각각 차지하게 된다. 즉 日本으로부터 直接進出한 會社의 總資本 중에서 네개의 大資本系統이 支配하는 比重이 79%로서 壓倒的으로 많다. 셋째 朝鮮主要資本系統이 支配하는 資本중에서 特殊會社가 17.0%, 殖銀系가 29.0%, 기타 日本人系가 48.0% 朝鮮人系가 6.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1930年以後 「朝鮮의 工業化」過程에서 몇몇 朝鮮人買辦資本家を 除外하고 朝鮮人은 全적으로 이 工業化過程에서 疎外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는 日本으로부터 直接進出한 獨占資本의 業種別 投資을 나타내고 있다. 化學工業(石炭液化業, 石油精製業, 無水酒精釀造業 및 製紙業包含)이 13社, 紡織業이 11社, 電氣業이 6社, 金屬工業(製鐵業包含)이 5社, 食料品工業이 5社, 鑛業이 3社 등으로 되어

<표 4> 業種別 朝·日 關聯 企業

業 種	社 數	業 種	社 數
紡 織 業	11	化 學 工 業	7
綿 紡 業	(5)	肥料 및 藥品製造業	(3)
人 絹 製 織 會 社	(3)	油 脂 工 業	(2)
製 絲 會 社	(2)	火 藥 製 造 業	(2)
麻 絲 紡 織 會 社	(1)	窯 業	4
鑛 業	3	飲 食 料 品 製 造 業	5
製 鐵 業	1	製 粉 業	(2)
金 屬 製 鍊 業	4	麥 酒 釀 造 業	(2)
造船 및 機械製造業	2	製 糖 業	(1)
石 炭 液 化 業	2	製 紙 業	1
石 油 精 製 業	1	電 氣 業	6
無 水 酒 精 釀 造 業	1	製 鹽 業	1
		鐵 道 業	1

자료 : 朝鮮銀行調查課, 『內鮮滿支關聯의 企業 및 投資一覽』, 1938. 2.

있다. 이 社數의 分布는 業種別 生産量 및 資本의 分布와 合致하지 않는다는 것은 勿論이나 日本으로부터 直接進出한 獨占資本이 大體로 어떤 業種에 投資되었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위에서 보인 것이 1930年以後 所謂「朝鮮의 工業化」를 推進한 日本獨占資本의 實體이다. 이러한 日本資本의 實體에 대하여 누구든지 異見을 提示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 近代史와 近代經濟發展과의 關聯下에서 어떠한 意味를 갖는가 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異見이 提示되었다. 즉 具體的인 現象에 어떠한 意味를 부여하는가 하는 問題에서 여러가지 異見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重要한 점은 누가 客觀的으로 存在하는 現象을 있는 그대로 보는가 하는 점이다. 1930年以後 소위「朝鮮의 工業化」는 그 主體가 日本獨占資本이기 때문에「韓國의 工業化」가 아니며, 朝鮮에 侵入한 日本獨占資本이 日本內의 獨占資本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主體로 獨立된 朝鮮의 社會構成體를 設定할 수가 없으며, 그것의 資本形態別 構成을 보면 商業資本의 比重보다 產業資本의 比重이 壓倒的이었다는 것이 客觀的인 事實과 符合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III. 日本獨占資本의 民族經濟收奪實態

日本獨占資本이 朝鮮에 있어서 急速하게 工業을 建設하는 過程은 우리나라 民族經濟의 沒落을 促進하였다. 이러한 日本獨占資本의 民族經濟에 대한 收奪은 戰時體制라는 造作된 狀況下에서 日本國家權力에 의하여 強權的으로 無慈悲하게 進行되었으며, 植民地的 條件下에서 朝鮮經濟全般에 걸쳐 恣行되었다. 그러므로 日本獨占資本에 의한 民族經濟收奪의 全貌를 理解하기 위해서는 朝鮮經濟全般에 關한 調査가 先行되어야겠으나 여기서는 生産過程에 投下된 日本獨占資本의 發展과의 關聯하에서 民族資本의 沒落, 朝鮮人의 強制貯蓄, 朝鮮人의 強制勞動을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1. 民族資本의 沒落

1930年以後 朝鮮에 있어서 日本獨占資本의 發展過程은 民族資本의 몰락過程과 對照되고 있다. 半植民地 및 植民地的 條件下에서 朝鮮의 民族資本은 그 發生・發展過程에서 日本人大資本과 對決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또「會社令」에 의하여 그 發展이 沮止되고 金融으로부터 全的으로 疎外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日本人大資本에 대하여 劣勢에 놓여 있었다. 朝鮮人資本중에서도 大資本은 만드시 그리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日本資本과 結託하여 發展할 수 있었으나 中小企業으로 構成되어있는 民族資本은 日本의 大資本으로부터 끊임

없이 經濟的으로 政治的으로 壓迫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日本의 植民政策에 의한 彈壓과 日本人大資本의 收奪이라는 惡條件下에서 成長하여 온 民族資本도 1930年以後 朝鮮에 있어서 日本獨占資本의 發展에 따라 沒落過程을 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時期에 民族資本이 沒落하지 않을 수 없었던 要因은 아래와 같다.⁽¹⁷⁾

첫째 資本供給이 遮斷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各種 租稅政策에 의하여 끊임없이 收奪되었다. 앞에서 든 「調整法」에 根據를 둔 「朝鮮貯蓄造成運動」은 民間인이 餘分の 現金을 所持할 수 없도록 各種 方法을 通하여 貯蓄을 增大시키고 金融機關에 集中된 貯蓄을 軍需産業을 擔當하는 日本獨占資本에 集中的으로 供給하였기 때문에 民族企業의 金融事情은 극히 惡化되었다. 그리고 日本獨占資本에는 租稅減免, 補助金の 受取, 其他 여러 가지의 財政的 特惠가 주어지는 반면 朝鮮人民族資本에 대해서는 이에 반비례로 各種의 租稅負擔이 增加하였다. 둘째 勞動과 技術의 供給이 두절되었다. 소위 「動員法」은 朝鮮의 勞動力을 日本 및 朝鮮의 軍需産業에 強制的으로 投入하였기 때문에 民族資本은 勞動力 특히 技術者의 供給을 받기가 어려웠다. 세계 戰時 物動統制 때문에 原料의 購得이 심히 困難하였다. 物動統制가 大部分의 原料를 日本獨占資本이 經營하는 軍需産業에 獨占시켰다는 것은 말할 必要가 없을 것이다. 네째 物價가 아주 빨리 오르는 事情下에서 公定價格制, 其他物價統制가 「經濟警察制」의 方法으로 施行되었기 때문에 暗市場에서 높은 가격으로 大部分의 原料를 購買할 수 밖에 없었던 民族資本은 沒落의 길을 견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植民政策當局은 戰時에 不必要하다고 생각되는 中小企業의 整理方案을 마련하여 이를 強行하였기 때문에 日本獨占資本의 繁榮下에서 民族資本의 沒落은 約束되어 있었던 것이다.

<표 5>는 1937年 당시 民族資本의 狀態를 나타내는 것이다. 民族資本은 朝鮮內總工場數 6,298個의 39.8%인 2,504個라는 많은 工場을 支配하고 있다. 그러나 그 內容을 보면 被傭人 5人以上 50人未滿의 小工場이 絶大多數를 차지하는데 대하여 被傭人 200人 이상의 비교적 큰 工場數는 14個에 不過하다. 이것은 단적으로 民族資本이 小企業에 集中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民族別 資本構成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1940年末現在를 基準으로 할 때 資本金 100百萬圓이상의 工場公稱資本은 朝鮮人資本이 6.0%, 日本人資本이 94.0%로 되어있다.⁽¹⁸⁾ 이 民族別 資本統計는 比較的 큰 工場의 것이기는 하나 被傭人 5人以上의 것을 보더라도 이와 大差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7) 全國經濟調査機關聯合會朝鮮支部, 『朝鮮經濟年報』, 1940, 第4章, 第6節 參照.

(18) 朝鮮銀行調査部, 『朝鮮經濟年報』, 1940, pp. 1-100.

民族別 工場構成의 추이를 보면, 1931年에는 朝鮮人이 支配하는 工場數가 2,424로서 全體의 52.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937年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工場數는 2,504, 全體의 39.8%에 不過하였다. 즉 工場數에 있어서는 工業化가 急速히 進前되었던 6年間に 겨우 80個라는 근소한 증가가 있었으나, 그 比重은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이것은 戰時體制가 強化되지 않은 1937年까지의 일이다. 이 以後 戰時體制가 強化되자 民族資本은 絶對的인 沒落의 길을 걸었다. 「京城府總動員課 14年(1939年) 4月末 事業關係工場休失業者調査로서 報告된 바에 의하면 種別 13種에 대하여 現在就業中の 것, 工場主 1,029名, 從業員 13,088名, 이에 대하여 休失業者는 業種이 극히 不振한 것, 業主 543名으로 過半數를 점하고, 從業員 3,401名으로 되어 있으며, 그중 메리야스製造業者는 就業工場 74, 從業員 597名 중 休失業者는 不振한 工場 59, 從業員 319名이며 점차 事變의 影響이 濃度를 가함에 이르렀다.」⁽¹⁹⁾

<표 5> 朝鮮人을 工場主 또는 長으로 하는 工場(1937)

業	區分	A	B	C	D	E	F	合 計	朝鮮內總工場數		
									%	%	
紡 織 工 業		212	19	5	4	5	8	253	59.4	426	100.0
金 屬 工 業		184	2	—	—	2	—	188	71.2	264	100.0
機 械 器 具 工 業		135	9	2	—	—	—	146	35.5	417	100.0
窯 業		207	4	2	—	4	2	219	63.3	346	100.0
化 學 工 業		1,087	48	19	9	22	22	1,207	76.0	1,588	100.0
製材 및 木製品工業		97	4	—	—	1	1	103	33.1	311	100.0
印刷 및 製本業		139	6	—	—	—	—	145	47.1	308	100.0
食 料 品 工 業		132	28	2	1	30	1	194	8.5	2,273	100.0
瓦 斯 및 電 氣 業		—	—	—	—	—	—	—	—	40	100.0
其 他 工 業		114	—	—	—	—	—	114	34.9	327	100.0
合 計		2,307	120	30	14	64	38	2,504	39.8	6,298	100.0

자료 : 全國經濟調査機關聯合會朝鮮支部, 『朝鮮經濟年報』, 1940, pp.512-2.

주 : 「表의 記號는 A는 使用職工 5人以上 50人未滿, B는 50人以上 100人未滿, C는 百人以上 2百人未滿, D는 2百人以上 工場을 나타내며, E는 休業中, F는 共同作業場으로 職工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資料 : 上同)

이와 같이 日本獨占資本의 繁榮 속에 民族資本은 沒落의 길을 걸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모든 朝鮮人資本이 이러한 運命에 處했던 것은 아니다. 一部 朝鮮人資本은 「大東亞共榮圈」體制에 積極 協力함으로써 巨萬의 富를 蓄積하였다. 여기서 한두개의 例를 들어보자. 京城紡織株式會社는 1919年 資本金 25萬圓을 가진 民族資本으로 出發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日本植民政策에 協力한 결과 日本金融資本의 支援하에 資本은 幾何級數의 으로 팽대

(19) 前掲書, p. 553.

하여 1944년에는 資本金 15百萬圓을 갖는 大企業으로 發展하였다. 그리고 1939년에는 資本金 1千萬圓의 南滿洲紡績株式會社를 설립하고 資本金 3百萬圓의 三養社도 經營하게 되어 一大財閥로 成長하였다.⁽²⁰⁾ 和信産業株式會社は 1926年 資本金 25萬圓을 가진 鮮一紙物株式會社로 出發하여 1941년에는 資本金 5百萬圓을 갖는 大會社로 發展하였다. 1939년에는 資本金 275萬圓의 和信貿易株式會社를 創設하였으며 또 1944년에는 資本金 5千萬圓(內容은 空虛하지 않았나 생각된다)의 朝鮮飛行機株式會社를 創設하였다.⁽²¹⁾ 위의 두 예에서 볼 수 있듯이 「大東亞共榮圈」體制下에서 그들의 致富過程은 眞實로 急速하였다. 이러한 急速한 致富는 總督府權力機構를 通하여 強制的으로 朝鮮人の 貯蓄과 勞動을 收奪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買辦資本家들의 急速한 致富過程도 民族資本의 絶對的 沒落과 예리하게 對照된다.

2. 朝鮮人貯蓄의 收奪

日本帝國主義는 日本獨占資本의 擴大再生産을 도우기 위하여 1937年 中國侵略戰爭을 감행하면서 朝鮮人の 貯蓄을 強制收奪할 計劃을 세웠다. 소위 「朝鮮貯蓄造成運動」은 「支那事變의 恒久化에 따라 生産資金의 供給을 潤澤케 하고, 公債消化를 圖謀하는 한편, 國費의 膨脹에 의하여 생기는 物價의 騰貴를 抑制함으로써 軍需資材供給의 確保……를 圖謀하기 위하여」 「(1) 收入이 激增하는 部分을 貯蓄으로 吸收할 것, (2) 物資의 消費節約에 의한 餘裕金을 극력 貯蓄으로 吸收할 것, (3) 農村振興運動과 併行하여 勞動에 의한 生産 또는 所得增加額을 貯蓄으로 向하게 할 것」⁽²²⁾을 目的으로 하였다. 朝鮮總督府는 이 運動을 強化하기 위하여 1938年 總督府에 「貯蓄獎勵委員會」를 두고, 總督府 및 各道에 이를 爲한 職員을 두는 한편 道別로 貯蓄目標額을 割當하였다. 그리고 1941年에 「國民貯蓄組合令」을 公布하는 한편, 「調整法」의 諸規定을 強行한 결과 1944年 10月에는 「國民貯蓄組合數」 117,429個, 組合員 8,238千人에 이르러 「年度當初에 있어서 全鮮各戶에 대하여 그 擔稅力, 生活程度 등에 따라……貯蓄目標額을 設定, 超過達成」케 할 수 있을 만큼 行政的 組織力이 強化되었다.⁽²³⁾

이러한 組織下에 貯蓄을 強制하는 方法도 여러가지가 있었다. 각종 「國債」의 強制消化, 射倖心을 조장하는 福票의 發行, 所得의 天引貯蓄, 賣物의 天引貯蓄, 入學祝賀貯蓄獎勵 등 그 方法은 실로 多樣하였다. 여기서는 代表的으로 農林水産物의 販賣에 대한 天引貯蓄을

(20) 『京城紡績五十年史』, 1969 參照.

(21) 和信産業株式會社, 『和信四十年史』, 1966 參照.

(22) 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 1940, pp.728-9.

(23) 朝鮮史料編纂會, 『太平洋戰下の 朝鮮(5)』, 1964, p.101.

보면 <표 6>과 같다. 朝鮮人口의 70%以上을 차지하는 農民은 1940年以後에는 각종 農產物販賣代錢의 1割以上 그리고 1944年以後에는 2割5分以上 強制貯蓄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그 販賣代錢도 現金으로서가 아니라 通帳으로서 支給받고 預金의 引出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從來 벼 買上代金에 대해서는 1가마니당 3圓10錢의 天引貯金을 實施하여 온 바 近時 農村에 있어서 資金滯留의 傾向이 顯著한 實情에 비추어 買上代金을 一應 金融機關(金融組合)에 豫入시키고 從前의 天引貯金相當額以外는 隨時 必要金額을 引出시킴으로써 불요불급한 用途에의 購買力化를 抑制하기 위하여 벼 買上代金의 通帳拂을 實施할 方針下에 本年度(1944年)는 잠시 이 趣旨의 徹底와

<표 6> 農林水產物等天引貯蓄率表

種 類	單 位	天 引 率	施行年月日	備 考
벼	販賣價格	1割以上	1940. 8. 23	但 玄白米인 경우는 1가마니당 2圓70錢天引 但 玄白米인 경우는 1가마니당 5圓90錢天引
	1가마니	1圓70錢	1941. 10. 29	
	"	3圓70錢	1943. 9. 9	
大 麥	販賣價格	1割以上	1940. 8. 23	
	1가마니	1圓30錢	1943. 6. 22	
	"	2圓90錢	1944. 5. 20	
小 麥	販賣價格	1割以上	1940. 8. 22	
	1가마니	2圓30錢	1943. 6. 22	
	"	5圓00錢	1944. 5. 20	
裸 麥	販賣價格	1割以上	1940. 8. 23	
	1가마니	2圓70錢	1943. 6. 22	
	"	4圓90錢	1944. 5. 20	
라 이 麥	販賣價格	1割以上	1940. 8. 23	
	1가마니	1割5分以上	1943. 6. 22	
	"	3圓40錢	1944. 6. 18	
棉 花	販賣價格	1割以上	1940. 8. 23	
	販賣價格	1割以上	1940. 8. 23	
其他農產物	"	1割5分以上	1943. 6. 22	
	"	2割5分以上	1943. 11. 20	
海 苔	"	1割以上	1940. 8. 23	
	"	1割5分以上	1943. 6. 22	
其他水產物	"	1割以上	1940. 8. 23	
林 產 物	"	1割以上	1940. 8. 23	
畜 產 物	"	1割以上	1940. 8. 23	牛, 豚의 賣買業者에 대해서는 時宜에 따 라 減할 수 있다.
	"	5分以上	1943. 6. 22	
副業生産物	"	1割以上	1940. 8. 23	

자료: 朝鮮金融組合聯合會, 『國民貯蓄運動에 關한 資料』, 第5輯, 1944. 12, pp. 39-40.

取扱機關의 人的 事務의 整備를 圖謀하는 데에 重點을 두어 그 準備를 完了하고 俸의 供出에 나쁜 影響을 주지 않는다고 認定되는 地方으로부터 漸次 實施하기로 한다.」⁽²⁴⁾ 다른 한편 勞働者에 대한 強制貯蓄을 보던 常勤勞者, 日傭勞動者 및 其他自由勞動者 할 것 없이 「勞務報公會」에 強制加入시키고 職長主로 하여금 最低賃金의 1割以上の 賃金을 支拂하기 전에 貯蓄시키도록 하였다. 1930年代의 農業恐慌과 低賃金이라는 條件下에서 朝鮮人勞動者・農民은 하루하루의 生活費도 벌기 어려운 처지에서 또 強制貯蓄을 媒介로 日本 獨占資本에 奉仕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표 7>은 貯蓄目標額과 實績額을 對比시킨 것이다. 어느 年度에 있어서나 實績이 目標를 超過達成하고 있으며 1944년에는 實績이 目標의 2.5배나 되었다. 그리고 1937—1944년의 7年間に 貯蓄은 무려 47배나 늘어났다. 勿論 이 貯蓄이 모두 朝鮮人의 貯蓄은 아니라 하더라도 行政強權에 의한 朝鮮人에 대한 殺人的 所得收奪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急速한 貯蓄의 增加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 貯蓄이 朝鮮의 所得중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어떻게 되는가? 「大體로 昭和 18(1943)年度 朝鮮의 所得은 대개 40億圓으로 見積된다. 40億圓의 所得중에서 昨年度의 貯蓄目標額 12億, 國稅 및 地方稅에 의한 吸收가 8億圓 合計 20億圓은 半島在住者의 所得중으로부터 調達되고 나머지의 20億圓으로 消費生活을 하는 計算입니다. ……19(1944)年度의 朝鮮의 總所得은 大體로 50億圓으로 見積됩니다. 그에 대하여 貯蓄이 18億圓, 國稅, 地方稅, 其他關係로 約 11~2億圓, 合計 30億圓이 所得으로부터 吸收되고 差額 20億圓前後가 消費生活資金으로서 使用을 許容하는 것이 되어 昨年度와 거의 같은 程度의 돈으로 消費生活을 꾸려 가려는 것이 하나의 目標로서

<표 7> 朝鮮貯蓄目標額 및 實績額 (1百萬圓)

年 度	目 標 額 (A)	實 績 額 (B)	B/A
1 9 3 7	—	126	—
1 9 3 8	200	272	136
1 9 3 9	288	390	135
1 9 4 0	500	576	115
1 9 4 1	600	755	126
1 9 4 2	900	795	111
1 9 4 3	1,200	1,524	157
1 9 4 4	2,300	5,859*	255

자료: 朝鮮金融組合聯合會, 『國民貯蓄運動에 관한 資料』, *은 朝鮮史料編纂會, 『朝鮮統治의 그 終局』, 1962, p.102.

(24) 前掲書, p.97.

貯蓄計劃을 세웠읍니다만 實際는 마음을 가다듬고 1割이든 2割이든 貯蓄을 增加시킬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²⁵⁾ 즉 朝鮮의 貯蓄率은 1943년에는 30%, 1944년에는 36%이며 所得에 대한 消費率은 각각 50%, 40%가 되는 것을 意味한다. 이것은 日本獨占資本의 發展을 위하여 朝鮮人이 어떻게 搾取되었는가 하는 또 하나의 指標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朝鮮人의 苛酷한 收奪에 의하여 形成된 貯蓄은 누구에게 提供되었는가? 앞에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調整法」은 이 貯蓄을 軍需産業을 建設하기 위하여 朝鮮에 進出한 日本獨占資本에 提供하도록 하였다. 이제 이 法에 의한 資金調整의 實績을 보자. 朝鮮總督府는 「昨年(1937) 10月15日로부터 朝鮮에 있어서 施行된 臨時資金調整法의 施行以來 滿1年間의 施行況狀을 보면, 自治的 調整을 行하는 金融機關의 異常한 努力과 各方面에 있어서 열렬한 協力에 의하여 커다란 摩擦없이 豫想以上の 好成績을 가지고 經過하여 왔다는 것은 잠시 決意를 굳게 하는데 充分한 것이다」⁽²⁶⁾라고 그 實績을 指摘하고 있다. <표 8>은 資金調整의 實績을 統計資料로 제시한 것이다. 이 表에 의하면 朝鮮內

<표 8> 事業設備資金의 調整標準別貸付狀況 (單位: 1千圓)

	金融機關別	甲 類		乙 類			丙 類	合 計	百分比 (%)
		(1)	(2)	(1)	(2)	(3)			
1938	銀 行	74,952	5,172	10,910	19,454	1,055	12,229	123,772	87
	其他의 金融機關	17,456	—	460	817	—	477	19,210	13
	合 計	92,408	5,172	11,370	20,271	1,055	12,706	142,982	100
	百 分 比	65	4	8	14	1	8	100	—
1939	銀 行	77,744	2,340	4,645	42,880	3,488	4,887	135,984	94.5
	其他의 金融機關	4,434	346	1,673	619	75	879	7,926	5.5
	合 計	82,178	2,586	6,318	43,499	3,563	5,766	143,910	100.0
	百 分 比 (%)	57.1	1.8	4.4	30.2	2.5	4.0	100.0	—

자료: 全國經濟調查機關聯合會朝鮮支部, 『朝鮮經濟年報』, 1940, pp. 137-9.

주: 甲類...甲類에 屬하는 事業은 金, 銅, 鐵, 石炭, 石油 等の 採鑛業, 自動車工業, 航空工業, 兵器製造業, 硫安製造業으로서 어느 것이나 軍需工業 또는 이에 密接히 關聯된 事業으로서 現在 不足하든지 혹은 時局産業上 需要의 激增에 의하여 不足을 일으키는 것. (1)...最優先軍需産業, (2)...(1)의 다음으로 重要하게 되는 것.

乙類...人造纖維製造業, 펄프製造業, 製材業 등 軍需와의 關係가 다소 薄弱하더라도 輸入의 防止, 輸出의 增大에 功獻하며 또는 原料供給 代用品供給 등에 關聯하는 事業. (1)(2)(3)...重要度表示.

丙類...平時,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으로 보아 不要品이든지, 重要事業이라도 現在 生産力過剩으로서 生産制限을 行하는 것.

(25) 朝鮮史料研究會, 『朝鮮近代史料研究集成』, 第4號, 1961, pp. 29-30.

(26) 全國經濟調查機關聯合會朝鮮支部, 『朝鮮經濟年報』, 1939, p. 395.

全金融機關의 貸付중 甲類가 1938년에는 69%, 1939년에는 58.9%로서 가장 比重이 크며 乙類는 각각 23% 및 36.4%이며 丙類는 8% 및 4%이다. 이 數字들은 貯蓄이 軍需産業을 擔當하는 日本獨占資本과 그 외 日本人大資本에 集中的으로 分配되고 中小企業을 主軸으로 하는 民族資本은 여기에서 疎外되었다는 것을 充分히 나타내 주고 있다.

3. 朝鮮人的 強制勞動

1930年以後 日本獨占資本이 朝鮮에 급속하게 進出하게 된 하나의 動機는 朝鮮에 豊富하고도 低廉한 勞動이 存在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朝鮮總督府는 日本獨占資本에 低廉하고 豊富한 勞動을 供給해 주기 위하여 公營職業紹介所를 통하여 多數의 勞動者를 日本獨占資本家들에게 供給하여 왔다. 그러나 1937年 日本帝國主義의 滿洲侵略으로 日本獨占資本의 朝鮮에의 進出이 더욱 急速하게 되자 朝鮮에도 어느 程度의 勞動不足現象이 나타나고 賃金도 上昇하는 傾向이 있었다. 이러한 現象은 日本帝國主義의 侵略戰遂行上 그리고 日本獨占資本의 植民地에 있어서 超過利潤을 獲得하는데 있어서는 극히 不利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1937년부터 朝鮮에도 「動員法」을 實施하였는 바, 이 法을 基礎로 하여 1939년에는 「國民職業能力申告令」, 「工場事業場技能者養成令」 및 「國民徵用令」을 公布하여 勞動力을 強制動員할 것을 計劃하는 한편, 「從業者雇入制限令」, 「學校卒業者使用制限令」(1938年 公布) 및 「靑少年雇入制限令」(1940年 公布)을 公布하여 「不要不急」事業에의 就業을 制限하고 「賃金臨時措置令」을 公布하여 勞賃騰貴를 抑壓하기로 하였다.⁽²⁷⁾ 이러한 方法에 의한 勞動力의 強制動員은 日本帝國主義에 特有的 것은 아니었으나 그 規模의 크기에 있어서는 前代未聞의 것이었다.

1937年以後 朝鮮인이 얼마나 強制勞動에 動員되었는지에 대하여 아직까지 完全한 資料가 밝혀지지 않아 잘 알 수 없으나 最近까지 가장 상세히 밝혀진 것은 <표 9>와 같다. 이 表에 의하면 1938—1945年間 朝鮮內에서 5百萬人 가까이 強制動員되었고 日本으로 1百萬人이상 強制連行되었다. 그러면 이들이 각각 어디에 動員되었는가? 日本에로의 強制連行은 論外로 하고 朝鮮內 強制動員을 보면 다음과 같다. 軍關係要員으로는 1939—1944年間に 14,084人, 工場 및 鑛山의 勞動者로서는 1944年 8月現在 徵用만 181,530人, 學徒勤勞動員이 工場, 鑛山, 農林水産 등에 181,530人으로 되어있고,⁽²⁸⁾ 나머지 官斡旋 및 道內動員은 工場, 鑛山, 土建, 港灣運送, 電業關係에 動員되고 있으나 그 數字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의 5백만인이라는 숫자가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昭和 19

(27) 朝鮮總督府, 『施政三十年史』, 1940, pp.884-94 參照.

(28) 朝鮮史料研究會, 『朝鮮近代史料研究集成』, 第4號, 「第85回議會說明資料」參照.

(1944)年度에 있어서 勞務動員計劃 約 124 萬人的 尙大한 數에 달하여 今後의 一層 強力한 勞務動員을 遂行하지 않으면, 所期의 目的達成은 至難한 狀況으로서 勞務選出方法의 一大 刷新을 기함과 동시에 勤勞援護의 強力한 實施를 企圖하여 動員의 效率을 最高度로 발휘 하는데 遺憾없기를 期하고 있다⁽²⁹⁾ 고 하고 있다.

<표 9> 朝鮮人 強制 連行 狀況 (單位:人)

地域	種 類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合 計
朝鮮內	官 幹 旋 用	19,516	45,289	61,521	46,887	49,030	58,924	76,617	44,263	402,053
	徵 用	—	—	—	—	90	648	19,655	23,286	43,679
	道內動員	74,194	113,096	170,644	313,731	333,976	685,733	2,454,724	(153,850) (106,295)	(260,145) ? 4,146,098
日本內	動員計劃	—	85,000	97,300	100,000	130,000	200,000	400,000	50,000	162,300
	連 行 數	—	53,000	56,398	67,098	119,851	128,354	286,432	10,000	724,925
				81,119	126,092	248,521	300,654		(126,060) (170,000) (290,000)	(160,427)

자료: 朴慶植, 『朝鮮人強制連行의 記錄』, 1969, pp.62-3.

그러면 이들은 어떠한 方法으로 動員되었는가? 徵用의 경우에는 令狀을 가지고 動員하였다. 學徒勤勞動員은 卒業後는 專攻別로 強制配置되고 在學生은 隨時로 動員되었다. 道內動員도 隨時動員이 많았다는 것은 확실할 것이다. 그러나 動員方法은 이외에 狩獵의인 것도 있었다. 都市의 길거리에서나 農村의 논밭에서 豫告없이 拘束되어 工場이나 鑛山으로 끌려가는 것이 예사였다. 官幹旋은 自由로운 職業紹介같이 위장되어 있었으나 그것도 事實上 一定한 地域에 一定한 人員의 動員을 強制하였으므로 徵用이나 다를 바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工場內 生活은 실로 悲慘하였다. 우선 그들의 賃金은 物價가 急速히 騰貴하는 條件하에서 統制되어 있었으므로 말할 수 없는 低賃金인데다가 日本人勞働者의 切半 밖에 되지 않았다. 「昭和 17(1942)年, 18年, 19年의 狀況에 대해서 보면 內地에 있어서 賃金額을 100으로 하는 경우, 朝鮮은 工場에 있어서는 男子는 大體로 50 내지 55, 女子는 60 내지 65, 鑛山에 있어서는 男子는 大體로 48 내지 52, 女子는 38 내지 43 程度에」⁽³⁰⁾ 不過하였다. 여기서 또 적어도 1割以上 強制貯蓄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貯蓄은 커녕 굶주리지 않을 수 없었다. 「밥이 不足하다. 배가 고프다」⁽³¹⁾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또 職業選擇의 自由나, 移動의 自由가 完全히 박탈되어 있었다.

(29) 朝鮮史料編纂會, 前掲書, 1964, p.180.

(30) 前掲書, p.171.

(31) 滿洲商工會議所, 『決戰下の 朝鮮經濟』, 1943, p.24.

「昭和 18(1943)年 중 朝鮮에 있어서 重要工場鑛山에 있어서 勞動者의 移動率은 月平均 工場 約 5%, 鑛山 約 11%로서 内地에 비하여 相當히 高率이나 昭和 19(1944)年以後 現員徵用을 實施하는 工場 및 鑛山에서는 無斷逃走 등이 거의 根絶되고 解雇者는 死·傷·病 등 어찌할 수 없는 事由가 있는 者 뿐이다.」⁽³²⁾ 또 그들의 宿所는 形편없는 假建物로서 밤에는 누워서 별을 헤아릴 수 있는 程度였다. 이와 같은 惡條件下에서 逃亡하다가 잘못하여 체포되는 경우면 죽도록 얻어맞든지 때때로 맞아죽기도 하였다. 北海道에서는 맞아죽은 朝鮮人勞動者가 埋葬되지 못한 채 눈속에 파묻혔다가 봄이 오면 白骨이 地上으로 暴露되었다고 하는데 朝鮮의 각 工場 및 鑛山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었겠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朝鮮의 工業化」 즉 「韓國의 工業化」의 膳物이었던 것이다.

IV. 結 語

1930年代 소위 「朝鮮의 工業化」는 日本獨占資本에 의하여 推進되었다. 日本獨占資本은 産業獨占資本으로서 商業資本도 아니며 貸付資本도 아니었다. 그리고 經濟開發理論에서 말하는 自己充足的 혹은 自己完了的 企業이 아니고 朝鮮經濟全般에 強力한 衝擊을 줌으로써 民族經濟의 沒落을 加速化시켰다.

소위 「朝鮮의 工業化」는 「韓國의 工業化」가 아니었다. 工業化의 主體가 日本獨占資本이라는 것을 명확히 認識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위 「朝鮮의 工業化」는 日本帝國主義의 外延的 擴大過程으로서 日本經濟工業化의 附屬物이다. 그리고 이것은 日本獨占資本을 主體로 朝鮮에 獨自의인 社會構成體가 成立할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다. 1930年以後 朝鮮에 日本獨占資本이 進出하여 「韓國의 資本主義」가 成立하였다는 것도 전혀 그릇된 것이다.

日本獨占資本이 朝鮮에 進出하여 「눈부신」 「韓國의 工業化」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소위 「朝鮮의 工業化」過程은 朝鮮의 民族資本을 沒落케 하고 朝鮮人의 貯蓄을 收奪하였으며, 朝鮮人을 奴隸의 方法으로 酷使하였다. 日本獨占資本과 朝鮮人買辦資本家가 富를 蓄積하는 過程은 바로 朝鮮人의 貧困의 蓄積을 의미했을 따름이다.

〔筆者：서울大學校 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專任講師〕

(32) 朝鮮史料編纂會, 前掲書, p. 166.